지난주일(11월20일) 설교 발췌

제목: 기쁨 충만, 가능한가? (빌 4:4~9)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순간은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손주를 보면 그렇게 기쁘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은 그림을 완성했을 때, 작가들은 소설이나 시를 완성했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고유하고 가치가 있어도 절대적이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만,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기쁨의 세계로, 즉 살아있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기쁨이 충만하여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관용을 보일 겁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바울은 고전 13장에서 노래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의 설교 내용에 동의는 하겠지만 실제 삶에서 실감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복잡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 충만해질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복잡한 인생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고민할 때도 있고, 쓸데없는 일로 고집을 피울 때도 있을 겁니다. 자기 삶이 뒤죽박죽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본문 6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은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즉 평상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수행적 삶입니다. 사람들과의 시시비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걱정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지를 바울은 7절에서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중입니다. 그에게 걱정할 만한 일도 적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비유적으로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애벌레의 삶이 왜 이렇게 구차한가, 하고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음’의 존재론적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셨나요?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2년 11월27일
대림절 첫째 주일
세계 교회력「가」해 1주

✞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 24:42)

2018년 12월 3일 자로 김영진 목사가 대구 성서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린 사진이다. 김 목사의 사진 설명은 다음과 같다. “겨울을 맞는 서해 풍경입니다. 정확히는 서해 천수만,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바다. 수평선에 기다랗게 걸쳐있는 섬은 안면도입니다.” 하늘과 바다의 색깔이 몽환적이다. 우주에 외로이 떠 있는 지구는 왜 이리 아름다운지.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00-5:00/ 간식 및 친교 : 5:00-5:20/
목사: 정용섭 010-8577-1227,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http://dabia.net/xe/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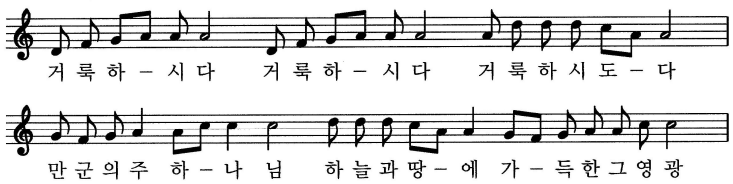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생명으로 심판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과 사람과 역사와 시간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찬송**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기뻐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2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전체 운명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낙심하지 않고 버텨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을 갈망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성부,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Sanctus) … 다 함께



[알리는 말씀]

* 오는 12월 4일은 서울샘터교회의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이자 교인 정기총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길 바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불참하실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운영진에 권한 위임을 부탁드립니다.

* 김태형 집사 가족이 오는 12월 3일 필리핀으로 출국합니다.
건강하고 안전 하게 지내다 귀국하길 바랍니다.

* 지난주일(11월20일)헌금: 670,000원(주일헌금 170,000원, 통장헌금 500,000원)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11월, 12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 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11월27일	이춘우목사	이유선집사	양혜선집사	최선아/아트컬리지5
12월 4일	정용섭목사	**김기범(사회)** 이기령(봉독)	양혜선집사	최선아,박정덕/시청각실
12월11일	이춘우목사	고중흥집사	이기령집사	오미영,이유선/아트컬리지5
12월18일	박재진목사	오미영집사	양혜선집사	박수진,김희란/아트컬리지5
12월25일	김동호목사	박수진집사	이기령집사	박은숙,김용성/아트컬리지5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3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세계 교회력 '가'해에 해당하는 2022~2023년 대림절 첫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여러 경우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의 논리에 익숙해져서 무엇이 참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분간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가르침을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아예 무관한 듯이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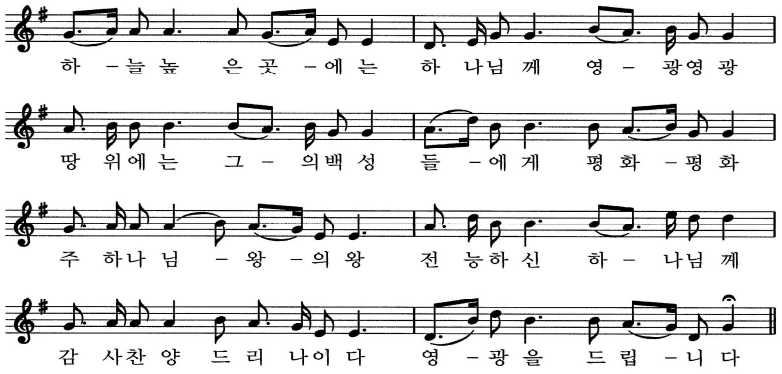
***참회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선포**

목사: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충만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만 사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큰 은총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바친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영광송) … 다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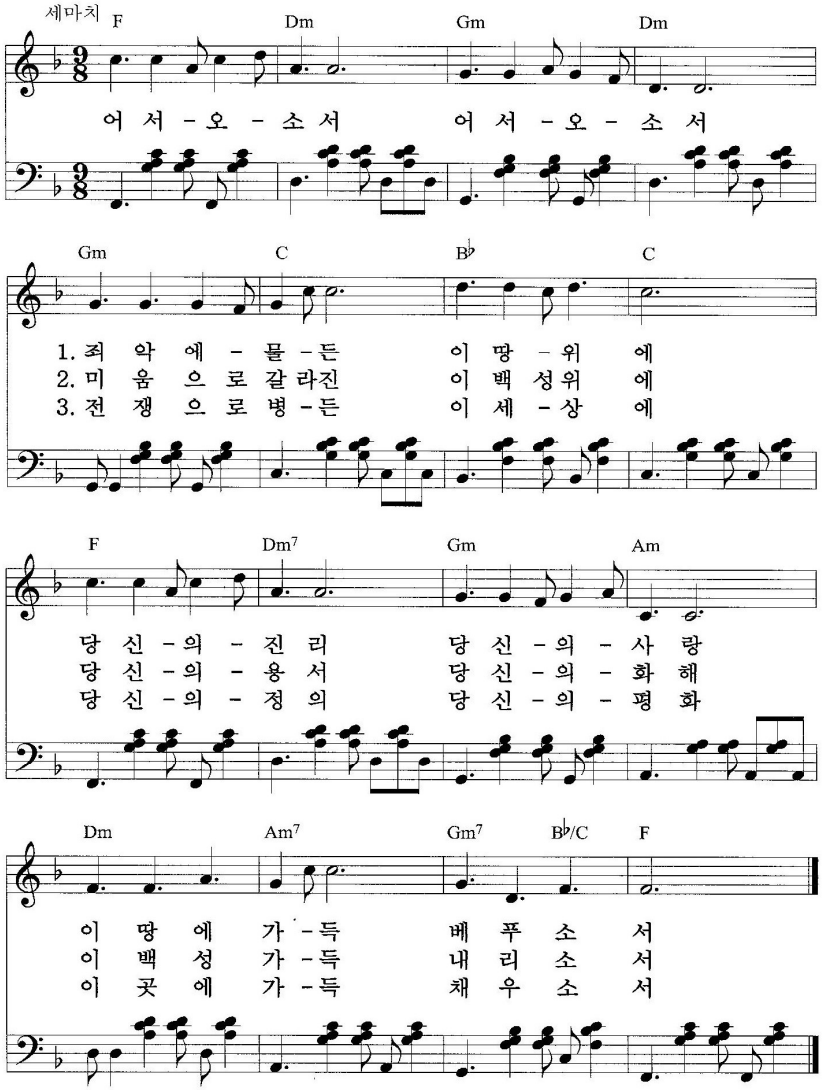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국악 찬송」65장 (어서 오소서) … 다 함께

조계연 조계연



시 27:14 대림절

말 씀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다시 읽히고 선포될 때/ 말씀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허락해주십시오. 세상의 솔깃한 말에 익숙해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이사야 2:1~5 … 이유선 집사

성시교독 시편 122:1~9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주님집에 올라가자 사람들이 말했다네/ 이말씀을 전해듣고 기쁨평화 충만하네
-우리발은 예루살렘 성문안에 들어왔네/ 예루살렘 너는정말 아름답게 보이누나

곳곳마다 치밀하게 잘지어진 성읍이라/ 주께속한 온지파들 주님이름 찬양하리
-우리조상 그랬듯이 그곳으로 올라가자/ 그곳에는 재판하는 보좌들이 자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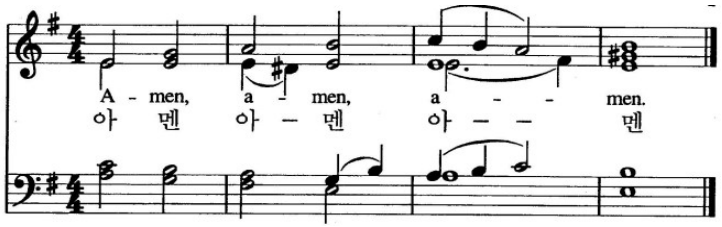
그보좌는 주님께서 다윗집에 주셨으니/ 예루살렘 평안하길 우리주께 기도하자
-예루살렘 사랑하면 모든일이 잘된다네/ 예루살렘 성읍안에 주님평화 가득하길

예루살렘 다윗궁도 참된평화 찾아오며/ 이웃친척 모든사람 주님평화 가득하고
-주님평화 당신에게 함께하길 바란다네/ 우리주님 집을위해 나는복을 구한다네

둘째말씀 로마서 13:11~14 … 이유선 집사

*셋째말씀 마태복음 24:36~44 … 이유선 집사

*응답찬송 새로운 예배 찬송 (아멘) … 다 함께



설교 잠듦과 깨어 있음 … 이춘우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 2절 … 다 함께